

‘선박 내 괴롭힘’ 상담·신고 전용창구 마련

-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‘선박 내 괴롭힘 상담 시스템’ 구축, 선원은 전용 번호 및 전자우편, 카카오톡으로 상담 가능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‘선박 내 괴롭힘 상담·신고 시스템’을 마련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.

지난 3월 열린 ‘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’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,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·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였다.

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, 부조리,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,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. 선원 상담은 상담·고충처리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.

구분	전화번호	전자우편	카카오톡 채널
내국인	1566-7541	help1566-7541@koswec.or.kr	채널명: 선내 괴롭힘 상담센터
외국인	1566-3151	help1566-3151@koswec.or.kr	

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하여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,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.

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.”라며, “또한, 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, 청년 선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석 (044-200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호택 (044-200-5742)



선내 괴롭힘 상담센터 신고 방법



전화 및 전자우편

내·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상담창구 구성

내국인 T. 1566-7541
E-mail. help1566-7541@koswec.or.kr

외국인 T. 1566-3151
E-mail. help1566-3151@koswec.or.kr



카카오톡 채널

「선내 괴롭힘 상담 센터」 채널 신설